

## 적중도전! (아님망고..) 외전

### 예상주제 : 테스 형

#### 1. 관련 기출지문

##### 1-1. 1997학년도 수능 5~6번 (듣기대본)

소크라테스는 좋은 삶이란 것을 참된 지식과 동일시했습니다. 지행 합일이라고 하지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사상을 죽음으로 실천했습니다. 그가 신을 모독하고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억울한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탈옥을 권합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독배를 기다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설득하려는 친구들에게 무엇이 옳은가를 따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테네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려온 이상 아테네 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의무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지행 합일이란 옳다고 판단하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맙니다. 법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졌으면서도 소크라테스가 탈옥해서 살아남으려 했다면 어땠겠어요? 그러면 그는 자신이 주장했던 명제를 스스로 어기는 셈이 되고 그가 말한 진리는 무효가 되는 거겠지요. 자신이 설마했던 진리를 죽음으로써 입증했던 셈입니다. 한편 알베르 카뮈는 자신의 죽음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선언하죠. 또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이 열리자 지구가 돈다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지구가 돈다고 하는 역사를 바꾼 진리조차도 자신의 죽음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갈릴레이나 뉴턴이 주장했던 진리는 죽음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강요되지 않습니다. 갈릴레이가 지구는 돈다고 말하건 돌지 않는다고 말하건 지구는 여전히 도니까요. 이러한 진리는 그들이 목숨을 거는 행위로 뒷받침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서 우리는 진리에 적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이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실천적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누가 믿건 안 믿건 변함이 없는 진리일 텐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진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 1-2. 2003학년도 수능 3번 (듣기대본)

우리는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들이 모두 가치가 있는 말일까요?

모두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단사는 임금님을 속여서 벌거벗은 채 사람들 앞에 나서게 하지요. 임금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듯 빠기고 있지만, 사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한 꼬마가 “임금이 벌거벗었다!”라고 외칩니다. 꼬마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비로소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말이 나옵니다. 바로 ‘재단사의 말’과 ‘꼬마의 말’이지요. 재단사의 말은 거짓된 말이고 꼬마의 말은 진실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현혹하는 재단사의 말과 진실을 깨우치는 꼬마의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 적중도전! (아님망고..) 외전

런 말들을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는 아이들을 위한 우화일 뿐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화려하게 꾸며대는 ‘법률가의 말’과 장터에서 회자되는 ‘환전상의 말’ 두 가지로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꾸밈없는 환전상의 말로 대화를 펼치며 세상을 현혹하고 있는 사람들을 벌거벗겼습니다. 그로 인해 사형 판결을 받고 죽어가는 순간까지, 소크라테스는 환전상의 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와 가벼운 대화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을 사실이라고 알려 주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혹시 내가 하는 말이 재단사의 말, 법률가의 말은 아닌가요? 자, 모두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 1-3. 2001학년도 수능 23~27번

소크라테스 : 자네 말은 이런 것이지. 재산, 권력, 건강, 영예 그리고 용기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쓰일 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

제 자 : 그것도 그렇군요.

소크라테스 :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유용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을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 자 : 아니요, 아무 소용도 없겠지요.

소크라테스 :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사람은 유용한 것을 가지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제 자 :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 그러나 그저 사용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 올바른 사용법과 그릇된 사용법이 있을 테니까. 만약 목수가 연장을 잘못 쓴다면 재료를 버리게 되니 쓰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게 아닌가?

제 자 : 그러면 목수가 연장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 : 목수가 톱이나 도끼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악사가 연주를 잘하고, 조각가가 조각을 잘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 자기 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닐까?

제 자 : 바로 그렇군요. 옳은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 : 그렇다면 먼저 말한 재산이라든가 권력, 건강, 영예, 용기 따위도 그것이 있기만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참된 지식에 의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만 선한 것이며, 만약 그것을 무지(無知)가 지배한다면 오히려 나쁘지 않을까?

## 적중도전! (아님망고..) 외전

### 1-4. 2010년 7급 국가직 국어 20번

분주한 생활에 쫓기는 중년층 이후의 도시인에게 레저 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레저(leisure) 또는 로와지르(loisir)란 '자기 일에서의 해방'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말의 여가, 한가로움, 안일 같은 소극적인 의미는 없고, 더구나 한가한 시간 보내기와는 전연 의미가 다르다. 소크라테스는 '최상의 재산은 레저'라고 하여 이 레저가 학문을 위한 레저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을 '지식, 행복, 레저'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레저는 지식과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며 인생의 궁극 목표라고까지 하였다.

### 1-5. 2011학년도 언어추론 38~40번 지문

아리스토텔레스는 피해야 할 세 가지 도덕적 상태로 '악덕', '짐승 같음'과 더불어 아크라시아(akrasia)라고 불리는 '자제력 없음'을 든다. 통상 자제력 없음은 스스로 최선이라고 이성적 판단을 내린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할 수는 없다. 그에 의하면 모든 악행은 무지의 탓일 뿐이다. 그러니 통상의 의미에서의 자제력 없음이란 소크라테스의 견해에서 보면 성립하지도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실제와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알면서도 자신이 내린 최선의 판단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것이다. 자제력 없는 사람도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는 그 나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백히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나쁜 행동을 선택할 뿐이다. 건강을 위해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음식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자제력 없음이라고 본다면,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 1-6. LEET 추리논증(예비시험) 30번

케팔로스 : 나이 든 사람들은 보통 노년에 나타나는 자신들의 온갖 불행이 나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훌륭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온 경우에는, 노인일지라도 나이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 : 사람들은 어르신께서 노년을 수월하게 지내시는 것은 훌륭한 생활 방식 때문이 아니라 많은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위안거리가 많고들 하니깐요.

케팔로스 :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

## 적중도전! (아님망고..) 외전

됩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섬나라인 세리포스 출신의 어떤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에게 “당신이 유명한 것은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내가 세리포스 사람이었더라도 유명해질 수 없었지만, 당신이 아테네 사람이어도 유명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대꾸했지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훌륭함 없이 유명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훌륭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가난하다면 수월하게 노년을 보낼 수 없겠지만, 훌륭하지 못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이 부유하다고 해서 수월하게 노년을 보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 1-7. 2013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15번

케팔로스 : 노년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젊었을 때의 마음은 갖가지의 욕망들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완숙한 노년기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갖가지의 욕망들이 뺏치기를 그만두고 숙여지게 됩니다. 그건 노예가 광포한 주인들한테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는 것과 흡사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의 원인이 있을 뿐이니, 소크라테스 선생, 그건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성품의 훌륭함입니다. 사람이 절제할 줄 알고 쉬 만족할 경우에는, 노령이 주는 신체의 힘듦과 온갖 불편함 속에서도 적당히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크라테스 선생,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사람한테는 노령도 젊음도 다 견디기에 힘들 겁니다.

소크라테스 : 케팔로스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어르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 어르신께서 노령을 수월하게 견디어 내시는 것은 성품 때문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위안거리가 많다고들 하니까 말씀입니다.

케팔로스 : 옳은 말씀입니다. 실상 그들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기가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닙니다. 아니, 이런 경우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한 아테네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 장군의 말씀이 적절한 거죠. 어느 날 테미스토클레스 앞에 듣지도 못한 세리포스라는 작은 나라 출신의 어느 평범한 이가 나타나서는, 테미스토클레스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유명한 것이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출신 나라 때문이라는 거죠.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꾸하셨죠. “내가 세리포스 시민이어서도 유명해질 수 없었지만, 당신이 아테네 시민이어서도 유명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하지 못하고 노령을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이 들어맞는 거죠.

## 적중도전! (아님망고..) 외전

### 1-8. 2015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22번

글라우콘 : 선생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로부터 생기는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해서 그것을 반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것을 가지고자 원하는, 그런 종류의 좋은 것이 있지 않나요? 이를테면 기쁨이라든가 또는 즐거움 중에서도 해롭지 않은, 그래서 이를 지닌다고 해도 나중에 기쁨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즐거움과 같은 것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되네.

글라우콘 : 두 번째 종류의 좋은 것으로서는, 우리가 그 자체 때문에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생기는 것 때문에도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를테면, 앎, 시각적 봄, 그리고 건강하기와 같은 것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 이유 모두 때문에 반깁니다.

소크라테스 : 그러하이.

글라우콘 : 세 번째 종류의 좋은 것도 있지 않나요? 신체 단련, 치료받기, 그리고 치료해주기와 다른 방식의 돈벌이가 여기에 속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힘든 일이지만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이것들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것들로부터 생기는 것 때문에 이것들을 선택할 겁니다.

소크라테스 : 세 번째 종류의 좋은 것도 있군.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건가?

글라우콘 :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것들 중 어느 것에 정의로움을 포함시키시렵니까?

소크라테스 : 나는 정의로움이 가장 좋은 것에 속한다고, 즉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생기는 것 때문에도 좋아하게 마련인 그런 종류의 것에 속한다고 나는 생각하네.

글라우콘 : 그런데 대중들은 정의로움이 수고스런 종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그에 대한 어떤 보수 때문에, 그리고 세평(世評) 때문에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저는 대중들의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믿고 싶고 또 이 믿음을 선생님께 확인받고 싶습니다. 저는 부정의를 비난하고 정의를 칭찬하는 훌륭한 논변을 선생님한테 듣고 싶되, 정의와 부정의가 각각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각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자체로서 무슨 힘(power,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듣고 싶을 뿐이지, 보수나 세평 또는 그 밖에 그로부터 생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 1-9. 2008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18번

소크라테스 : 침대의 제작자의 경우는 어떨까? 그는 우리가 침대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침대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까? 그가 만드는 것도 역시 개체로서의 침대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하지 않을까?

## 적중도전! (아님망고..) 외전

글라우콘 :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 침대 자체를 만들 수 없는 자는 결국 참으로 존재하는 침대를 만들 수 없는 걸세.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침대와 비슷한 것뿐이네. 그러므로 침대를 만드는 사람이나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제작품이 실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네.

글라우콘 : 분명히 그렇습니다. 적어도 철학자의 눈으로 보면 참된 실재가 아닙니다.

.....

소크라테스 : 만일 여럿을 만들면 설사 두 개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의 배후에 그것들의 이데아가 되어야 하는 제3자가 나타날 걸세. 그리하여 그것이 이상적인 침대이며 다른 두 개의 침대는 결코 이상적인 침대가 될 수 없을 걸세.

글라우콘 :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 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네. 그리고 신은 참된 침대의 제작자가 되고 싶어 하네. 즉 하나하나의 침대의 제작자 중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네. 그 때문에 실재하는 침대를 오직 하나 만들었을 뿐이네.

글라우콘 : 알겠습니다.

소크라테스 : 그러므로 우리는 신을 원형의 제작자라고 부르는 걸세. 그렇게 부르는 것이 좋겠지.

글라우콘 : 그렇습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말하면 그가 원형의 제작자입니다. 침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 1-10. 2007년 입법고시 PSAT 언어논리 14번

소크라테스 : 멜레토스를 비롯한 그 동료들의 고발에 대해 변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법정에 제출한 공술서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는 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신을 끌어 들인다…….” 이것이 나를 고발한 죄목입니다.

소크라테스 : 멜레토스, 내가 어떻게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인지 대답해 보게. 자네가 써낸 공술서에 있듯이, 내가 그들에게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렇게 했다는 뜻인가?

멜레토스 :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 자네가 분명히 말해 줄 것은 내가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특정 신들을 믿도록 가르쳤다는 것인가의 여부이네. 이 경우라면, 나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고, 따라서 무신론자라는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네. 다만, 내

## 적중도전! (아님망고..) 외전

죄는 국가가 믿는 신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었다는 것에 있네. 아니면, 나는 아예 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라는 말인가?

멜레토스 : 당신은 아예 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소크라테스 : 그런 말을 하다니, 자네는 이상한 사람일세.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태양이나 달이 신이라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멜레토스 :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 멜레토스여, 신에 맹세코 내가 어떤 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인가?

멜레토스 : 그렇습니다. 당신은 전혀 신의 존재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 자네 말은 믿을 수가 없네, 멜레토스여. 자네 자신조차 자네 말을 믿지 못할 것이네. 배심원 여러분, 이 사람은 매우 오만하고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의 오만함과 난폭함과 치기 어린 열정이 이 고발장을 써내게 한 것입니다. 그는 애써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 현명한 소크라테스는 내가 농담을 지껄여서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것인가, 아니면 그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속아 넘어갈 것인가?” 그는 진술서에서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지 않는 죄와 신을 믿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람의 말이 어떻게 모순을 범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레토스, 내 질문에 대답해 보게. 여러분, 내가 처음에 했던 부탁을 잊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말하던 방식대로 말하더라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멜레토스, 인간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인간사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나? 말(馬)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말에 관련된 일(馬事)들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나? 플룻 음악이 있다는 것은 믿으면서 플룻 연주자의 존재는 믿지 않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번 질문은 꼭 대답해 보게. 어떤 사람이 신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신과 관련된 일들은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겠나?

멜레토스 :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 하기 싫은 대답이었겠지만, 이 배심원들 때문에 억지로라도 대답해 주다니 고맙네. 자네 말에 의하면, 나는 모종의 신성한 활동, 즉, 다이몬의 활동을 믿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네. 자네의 고발장에는 내가 그런 다이몬의 활동을 믿는다고 되어 있네. 그런데 만일 내가 다이몬의 활동을 믿는다면, 나는 또한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되네. 그렇지 않은가? 그럴 수밖에 없지. 자네가 대답하지 않으면, 나는 자네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네. 우리가 말하는 다이몬, 곧 신성한 존재란 신을 말하거나 신의 이세(二世)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적중도전! (아님망고..) 외전

멜레토스 : 물론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 자네가 말하듯이, 내가 다이몬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네가 수수께끼를 내서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네. 자네는 한편으로 고발장에서 내가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말하고서는, 다른 한편으로 내가 다이몬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네. 이것은 내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긍정한다는 말과 같네. 다이몬의 존재는 신의 아들, 곧 신과 님프 사이에 혹은 신과 다른 어머니들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신들을 말하는데, 이 신의 이세들은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마치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의 존재는 믿으면서 말이나 당나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것이네.

### 1-11. 2013년 민간경력자 PSAT 언어논리 22번

소크라테스 : 그림에다 적합한 색과 형태들을 모두 배정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빠고 어떤 것들은 덧붙일 수도 있는 것이네. 그런데 적합한 색이나 형태들을 모두 배정하는 사람은 좋은 그림과 상(像)을 만들어내지만, 덧붙이거나 빠는 사람은 그림과 상을 만들어내기는 하나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겠지?

크라틸로스 :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 같은 이치에 따라서 적합한 음절이나 자모를 모두 배정한다면 이름이 훌륭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빠거나 덧붙인다면 훌륭하지는 않겠지?

크라틸로스 : 하지만 음절과 자모를 이름에 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자모를 빠거나 덧붙인다면, 우리는 이름을 쓰기는 했지만 틀리게 쓴 것이 아니고 아예 쓰지 못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 그런 식으로 보아서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이네.

크라틸로스 : 왜 그렇죠?

소크라테스 : 수(數)의 경우에는 자네 말이 적용되는 것 같네. 모든 수는 자신과 같거나 자신과 다른 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를테면 10에서 어떤 수를 빠거나 더하면 곧바로 다른 수가 되어 버리지. 그러나 이것은 상 일반에 적용되는 이치는 아니네. 오히려 정반대로 상은, 그것이 상이려면, 상이 묘사하는 대상의 성질 모두를 상에 배정해서는 결코 안 되네. 예컨대 어떤 신이 자네가 가진 모든 것의 복제를 자네 곁에 놓는다고 해보세. 이때 크라틸로스와 크라틸로스의 상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두 크라틸로스가 있는 것일까?

크라틸로스 : 제가 보기에는 두 크라틸로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 그렇다면 상이나 이름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이치를 찾아야 하며, 무엇이 빠지거나 더해지면 더 이상 상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겠지? 상은 상이 묘사하는 대상과 똑같은 성질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나?

## 적중도전! (아님망고..) 외전

### 1-12. 2013학년도 LEET 추리논증 21번

(가)

소크라테스 : 라케스여! 용기는 무엇인가요?

라케스 : 용기는 영혼의 끈기입니다.

소 : 당신은 용기가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시지요?

라 :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 : 그런데 똑똑한 끈기가 아름답고 훌륭하지 않을까요?

라 : 그야 물론입니다.

소 : 똑똑하지 못한 끈기는 어떨까요? 앞의 것과 반대로 나쁜 결과를 낳고 해롭지 않을까요?

라 : 네.

소 : 그러면 당신은 나쁜 결과를 낳고 해로운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라 : 아뇨,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소 :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종류의 끈기가 용기라고는 동의하시지 않겠네요? 용기는 아름다우니까요.

라 : 맞는 말씀입니다.

소 : 따라서 당신 말에 따르면 용기는 똑똑한 끈기가 되겠네요.

라 : 그럴 것 같네요.

(나)

소 : 그럼 봅시다. 돈을 투자함으로써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리라는 것을 알기에 똑똑한 방식으로 끈기 있게 계속 투자를 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이 자를 용감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부르나요?

라 : 맙소사!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죠.

소 : 환자가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하지만, 의사는 지금 주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굽히지 않고 끈기 있게 거절합니다.

라 : 이것도 역시 결코 용기가 아니죠.

(다)

소 : 이제 다른 경우를 봅시다. 두 사람의 군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똑똑한 계산 하에서, 즉 자신의 부대에 지원군이 올 것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자신의 군대가 더 유리한 지형을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끈기 있게 버팁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반대편 군대에서 머물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 끈기 있게 버티면서 싸우고자 합니다. 누가 더 용감한가요?

라 : 소크라테스여! 후자가 더 용감합니다.

소 : 그렇지만 후자의 끈기는 전자의 끈기에 비교할 때 어리석은 것입니다.

라 : 맞습니다.

- 플라톤, 『라케스』

## 적중도전! (아님망고..) 외전

### 1-13. 2011학년도 언어추론 5~7번 지문

“잃어버린 자기 반쪽을 찾아다니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은 자기 반쪽이나 온전함을 되찾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발이나 손이 병들었을 때 심지어 잘라 버리는 것도 참아 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혹시 달리 생각하나요?” 디오티마가 말했네.

“전혀 아닙니다. 디오티마 님.” 내가 말했네.

“그럼 그냥 간단히, 사람들은 좋은 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 ‘갖게 되기를’이라는 말을 덧붙여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늘 갖게 되기를’이라 해야 하지요?”

“그것도 그래야죠.”

“그럼 결국 사랑은 좋은 것을 늘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면,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모르겠네요.”

“몸에서든 영혼에서든 아름다운 것 안에서 출산하려 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통 이해 못하겠네요.”

“더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은 몸도 영혼도 임신한 상태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출산하고픈 갈망이 생기지요. 그런데 임신과 출산은 조화롭지 않은 것 안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추한 것 안에서는 안 되고 아름다운 것 안에서만 할 수 있지요. (중략) 사실 단지 아름다운 것이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면 뭐가요?”

“아름다운 것 안에서 하는 출산이 사랑의 대상이죠.”

“일단은, 좋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출산이 왜 사랑의 대상일까요? 출산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가사자(可死者)가 가진 불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합의한 대로 사랑이 좋은 것을 늘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불사도 갈망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사랑의 대상이 불사라는 것도 이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지요.”

이 모든 것들을 디오티마가 가르쳐 주었네.

한번은 그녀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네.

“이런 사랑과 갈망이 생기는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짐승들이 새끼를 갖고 싶어할 때면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처하는지 봤지요? 서로 함께 섞일 때에도, 또 태어난 새끼를 기를 때에도 사랑에 애타는 상태가 됩니다. 새끼들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 않지요. 인간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다 쳐도, 짐승이 그토록 사랑에 애타는 상태가 되는 까닭이 뭘까요?”

“모릅니다.”

## 적중도전! (아님망고..) 외전

“우리가 앞에서 합의한 것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당신이 믿고 있는 게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가사자는 할 수 있는 한 늘 있기를, 즉 불사를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연속 생성 과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것 대신 다른 새로운 것을 늘 남기는 과정 말입니다. 사실 이걸 동물 하나하나가 살아 있다고, 또 같은 것이라고 불리는 동안에도 그렇죠. 예컨대 사람은 갓난애 때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같은 사람이라고 불리지요.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같을 때가 없고 늘 새로운 사람이 되며, 머리카락, 살, 뼈, 피 같은 것들은, 아니 몸 전체가 계속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영혼의 경우도, 그러니까 습관, 성격, 믿음, 욕망, 쾌락, 고통, 두려움 등도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람 안에 늘 같은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생겨나고 어떤 것들은 소멸합니다. 이것들보다 훨씬 더 특이한 일은 앎의 경우도 그렇다는 겁니다. 앎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생겨나고 어떤 것들은 소멸하지요. 그래서 심지어 앎의 관점에서조차도 사람이 같은 사람일 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앎 하나하나도 같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하는 것도 앎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 때문이거든요. 복습은 떠나는 기억 대신 새로운 기억을 다시 만들어 넣어 줌으로써 같은 앎으로 보이게 하지요. 사실 모든 가사적인 것이 이런 방식으로 보존됩니다. 신적인 것처럼 모든 면에서 늘 같은 것으로 있음으로써 보존되는 게 아니라, 늙어 가고 떠나는 대신에 자기와 닮은 새로운 것을 남겨 둬으로써 보존되지요. 이런 장치를 통해 가사적인 것은 불완전한 자신의 한계를 넘어 불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 플라톤, 향연 -

### 1-1. 2015학년도 LEET 추리논증 12번

소크라테스 : 자네 생각으로는 어떤 이는 좋은 것을 원하지만 어떤 이는 나쁜 것을 원한다는 건가?

메논 : 네.

소크라테스 : 나쁜 것을 원하는 자는 나쁜 것을 좋은 것인 줄로 여기고서 원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원하는 자인가?

메논 : 양쪽 다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원하는 자는 그 나쁜 것이 자신에게 이로울 줄로 여기고서 원하는 자인가, 아니면 해로울 줄 알고서 원하는 자인가?

메논 : 두 부류 다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 또한 그 나쁜 것이 자신에게 이로울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그 나쁜 것이 나쁜 줄을 아는 자일까?

메논 : 적어도 그건 전혀 아닐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 그렇다면 그는 나쁜 것을 원하는 자는 아니네. 나쁜 줄 몰라서 그게 좋은 줄로 여긴 거니까 실상 그런 사람은 좋은 것을 원하는 자임이 명백하네.

메논 : 적어도 그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 적중도전! (아님망고..) 외전

소크라테스 : 한편 자네 주장처럼, 나쁜 것이 해로울 줄로 여기면서도 그 나쁜 것을 원하는 자는, 그것으로 해서 자신이 해로움을 당할 것임을 알고 있을까?

메논 : 그야 물론입니다.

소크라테스 : 그러나 이들은 해로움을 당하는 자를 비참한 자로 간주하겠지?

메논 : 그것 또한 필연적입니다.

소크라테스 : 하지만 비참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까?

메논 :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 그렇다면 아무도 나쁜 것을 원하지는 않네.

메논 :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플라톤, 「메논」-

